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자기 중심에 놓고 가라

☞25면에서 계속

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걸 뜻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느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끼리끼리 만남에 의해서 돌아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부인 탓을 하겠습니까, 남편 탓을 하겠습니까, 자식 탓을 하겠습니까. 모든 걸 탓하지 말고 제가끔 생각하는 대로 자기 탓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그냥 홀랑 벗어난다 이겁니다.

'화목을 가져오는 것도 너밖에 없다. 나를 이끌어 가는 것도 너밖에 없다. 나를 낮게 해주는 것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고통스런 고가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한테서 없애고 네가 이끌어줘야지 딴 데서는 이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놓는 작업을 수없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실험을 해서 거기다 놓고 착 지켜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완화가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 좀 더 유하게 되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지를 않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꾸자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대나무 방귀 씨를 심어서 대나무 귀신 방귀털을 먹여서 키운다. 그런데 그 방귀털을 더 먹여도 안 되고 털 먹여도 안 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나한테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필요도 없고 오는 거 마다할 필요도 없고 오는 대로 그냥 그 중심에 놔라 이겁니다. 놓고 가라. '거기서만이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거니까, 모든 건 네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놈이 다 알아서 할 게 아닌가! 네놈이 이끌어줄 거고 네놈이 다 할 거고. 이 몸도 네 시자, 네 종이니까 네가 건강하게 이끌고 다니려면 이끌고 다니고,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왈칵 그냥 다 놔버리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굴려놓는 자체가 팔수레 공법이란 말입니다. 바로 사무 사유, 이것이 팔입니다. 모두를 본다면 하나하나가 그냥 거저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여러분이 다 지어놓은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냥 살아가는 거 같지만 지금 살아나가는 게 끌려가고 매달려가는 셈입니다.

그러니 모두 마음들을 잘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여기 사시는 마산 분들이 열심히 해서 마산을 아주 풍요롭게 하고 내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세요.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려면 세계를 풍요롭게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다가 또 수없이 인연 따라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짐승을 만나고 이럴 때 한생각에 다 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바다로 비유해 보죠. 바다에 몇 양동이 물을 갖다 붓는다고 두드러집니까? 두드러지지 않죠? 또 몇 양동이를 퍼낸다고 줍니까? 안 줍죠?

고거와 같다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들을 수없이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으니 무명을 벗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맡겨놓는다면,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바로 평등공법, 활궁공법이 그냥 수없이 자동적으로 솔솔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도 중력에 대해서 캐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발전하는 것도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또 생각을 잘해서 발전하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 한 철 캠핑하러
> 나왔는데 그 사이에
> 이 도리를 알아서

겁니다. 그냥 자기 홀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차원대로 높은 것입니다. '차원대로 높은 것이다.' 하는 거는 낮고 높고가 없다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대로 높고 공업 하는 사람은 공업 하는 사람대로 높습니다. 고거 두 마디만 해도 아시겠지요? 상업 하는 사람은 상업하는 대로 높고요. 왜? 이거 하는 사람에게 저거 하라면 못하고 저거 하는 사람에게 이거 하라면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낮고 높은 게 없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사대 성인들도 다 내 주인공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佛)이라는 단어는 최상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고 어느 거 하나도 생명이 없는 게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불입니다. 또한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 보이지 않는 데나 보이는 데나 모두 서로가 통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통해서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느 종교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끊간 데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 자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불교다 이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라.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하러 들어왔더라도 남을 증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내 주인공에다 맡기고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칼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 합니다.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깡패들을 만났는데 돈 내놓으라고 칼을 들고 하도 야단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 모두가 둘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그냥 급하니까 거기다 맡겼답니다. 급한 나머지 막 그냥 주인공도 부르고 스님도 부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셋이서 "에이! 이놈 봐봤자 시간만 낭비해!" 그러곤 가더랍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력을 기르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하고 창조력을 길러야 되고 창조를 해내야 되겠죠. 이건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입니다.

어느 사람이 속세를 떠나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하니까 "너, 다 버리고 간다면 먹지도 말아야 하고 입지도 말아야지. 또 참선을 한다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니까 앉았으면 일어나지도 말아야 하고 오줌도 누지 말고 똥도 누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선 깨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이러는 모두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하나도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쪼그맣다고 깔보고 또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옛날에도 망상과 졸음을 쫓기 위해서 턱에다 칼을 대고 그랬다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잠이 오는 것도 근본에서 나오는 거, 망상도 근본에서 나오는 거니 모두 근본에 돌려놓으면 근본에서 잠을 덜 자게 할 수도 있고 더 자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수십억 마리의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목석이 아닌 이상에야 생각이 있는 거지요. 목석입니까, 생각이 없게? 있는 대로 그냥 자꾸 거푸거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다 맡겨 놓고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선 놓게 되면 졸음과 망상 때문에 공부 못하지는 않습니다.

자는 것도 참선이요, 일어나 앉은 것도 참선이요, 선 것도 참선이요,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모두가 참선 아닌 게 없으니 아니, 어떤 거를 놓고 어떤 거를 안 놓고 어떤 거를 끊고 어떤 거를 끊지 않고가 어딨습니까? 그걸 송두리째 집어삼켜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 우리가 탑을 쌓으려 해도 한순간에 쌓을 수가 있고 봉우리를 올려놓으려 해도 한순간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수다 돈오다 할 게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둘이 아닌 까닭에 앉았다 서는 것도 참선입니다. '아이구! 내가 이렇게 답답해서 쓰겠나. 이렇게 공부가 안돼서 쓰겠나.' 하는 생각조차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놔라 이겁니다. 모든 걸 다요.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건 돌려서 놓고요.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걸 내가 하고 어떤 걸 끊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래는 놓고 갑니다. 여러분이 본래는 놓고 가는데 마음으로 놓고 가질 못해서 고만 그렇게 업이 되죠.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말을 해줘서 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사람의 사량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생각에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 태양의 근본에 의해서 은하계로 연결이 되고, 또 지구로 연결이 되고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에 다 연결이 돼서, 이름만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라고 하지 같이 돌아갑니다.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생명의 근본이

> 세세생생 끝간 데 없이
> 자유자재할 수 있는
> 자유인이 되어야!

있죠? 또 마음을 내는 마음,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있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삼위일체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대천세계와 중천세계 소천세계가 다 같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그 대천세계 도리천도 한생각에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다,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멋진 묘법을 모르고 육신을 그냥 버린다면 참 원통할 거예요. 원통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원통하고말고요! 남 날 때 나서 코 달리고 눈 달리고 귀 달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이 도리를 모른다면 그냥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먹고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다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도리를 알아서 세세생생 끝간 데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문제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리송하고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태양도 은하계도 다 직결돼 있고 이 세상 만사가 가설이 돼 있어서 그게 한생각에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태양이 새끼를 낳게 할 수도 있고 그 새끼가 어미가 될 수도 있고, 하하하…, 알을 낳을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태양을 팽창시킬 수도 있고 타 버리게 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잘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모든 게 다,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수화풍에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공기도 감사하고 불도 감사하고 물도 감사하고 죄 감사한 겁니다. 아침 쇳송에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고 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이끌고 나가는 왕의 은혜를 알아라. 우리를 낳아 준 부모의 은혜를 알아라. 국민의 은혜를 알아라. 이 '국민의 은혜를 알아라.' 하는 거는 모두가 서로 주고 먹고 사니까 말입니다. '사장(師長)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일체 만물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물이든지 초목이든지 모든 산천초목이 '나를 보고 나같이 살아라.' 하고 설법을 해 주니까 말입니다.

목신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두가 '날 먹고 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잘할 수 있을까. 날 먹고 살면서도 나하고 둘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하고 설법을 한다 이겁니다. 말 없이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근중한 줄 알고 아껴 먹어라.' 이러고 설법도 한다고요. '우리들을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막 내버리지 말고 귀중한 줄 알고 먹어라. 우리도 생명이 있는 거다.' 하고 말이에요.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는 대로 우리한테 설법을 해 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흘러갈 때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간다. 거스르지 않고 돌아간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뚫고 나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모두 병들고 죽지 않느냐.' 하고 설법을 합니다. 허허허…. 그래 일체 만물이 다 설법을 해 줘요.

그러니 내 스승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나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아픔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님이 어딨습니까?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 쫓고 쫓기고 진화하면서 여기 가서 태어났다 저기 가서 태어났다 이쪽 자식이 됐다 저쪽 부모가 됐다 이러는데, 그렇게 수없이 흘러나왔는데 지금 당대의 부모 자식만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부모도 내 부모같이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집에서 부모 노릇을 하다가 죽어서 이쪽 자식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 집에서 떠나와서 이쪽 집의 자식 노릇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면 이쪽의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과거니까, 자기가 살아 있을 때 벌써 과거가 돼 버리고 현실이 돼 버렸는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4월 26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 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 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착춤
▫ 연구반 : 안청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숭,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